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간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

신만식 (KOICA 중남미실 실장)

연제호 (KOICA 카메룬사무소 소장)

김광욱 (KOICA 기획조정실 대리)

제I장

제II장

섹
터
포
커
스

제III장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 및 방법

II. 지역 ODA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점

1. 지역 ODA사업 추진실태
2. 지역 ODA사업 추진 한계점

III. JICA의 지역센터 운영현황

1. JICA 지역센터 개요
2. JICA 지역센터 운영사업
3. 시사점

IV.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현황 및 추진사업

1.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현황
2. 국제개발협력센터 추진사업

V.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 간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

1. 개요
2. 단기 발전방안
3. 중장기 발전방안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역 ODA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 ODA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점을 지자체의 ODA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KOICA와 같은 국내 원조전담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거점대학, 지역 파트너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JICA 지역센터의 사례를 들면서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 ODA사업이 부진해진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의 하나는 지자체가 ODA사업 추진과정에서 KOICA와 같은 ODA사업 주류기관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오지 못한 점이다.

이에, KOICA-지자체 이외 거점대학을 포함한 3자간 협력을 통해 우선 거점지역별로 지역 ODA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설립되어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를 비롯한 해당 지역의 거점대학,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들이 협력해나간다면 지역 ODA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거점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발전은 지역 ODA사업의 발전과 같은 연결 선상에 있으며, KOICA와 지자체 양 기관이 주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역 ODA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센터가 향후 지역 ODA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2단계로 나눠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가입하고 다음 해인 2010년부터 정식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 시점에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기관의 하나로 정의되어 있으며, 2015년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총 10개의 지자체에서 165.5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5년 1월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중 지자체의 ODA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업관리 측면, 사업 중복·분절화 측면, 사업 효과성 측면, 사업 추진역량 측면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는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ODA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지자체의 ODA 조직 및 인력 측면, 중앙정부의 ODA 전략 연계 측면, 사업 내용 및 형태 측면 등에서 개선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는 ODA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KOICA의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지방의 참여 파트너들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의 ODA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KOICA 및 ODA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이고자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사업’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KOICA는 제주, 대구, 전북, 대전, 경기, 강원,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KOICA-지자체-국립대학 3자 간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한 상태이며, 각 센터는 대학 부속 조직으로서 2016년부터 ‘KOICA-지자

제I장

제II장

섹터
포커스

제III장

체-대학'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ODA 교육사업,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 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 원조조달 설명회 및 교육, ODA 홍보 및 포럼행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지자체들의 ODA 추진현황 및 문제점, 일본 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에서 지역 ODA사업 참여를 높이하고자 설립한 지역센터들의 운영현황, 코이카-지자체-거점대학 간 협력 하에 설립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추진목적 및 추진사업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및 발전을 통해서 지자체 ODA사업을 포함한 지역 ODA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그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ODA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ODA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지자체의 ODA 예산비중도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의 ODA사업 개선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중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동 외, 2014년)'는 여러 지자체의 ODA사업 추진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선진국(독일, 일본) 및 개도국(베트남)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국내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 우리나라 ODA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자체만의 ODA 수행전략 수립, 중점사업 규모 확대와 자원조달 방식의 다원화, ODA 인지 제고 및 교육훈련 필요, 지자체 ODA사업 협의체 등을 제안하였다.

'충남 ODA사업 추진 방향 연구 (여형범 외, 2015년)'는 국내외 지자체 ODA사업현황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이 중 국내 지자체로는 경북, 서울, 강원, 그리고 국외 지자체로는 스페인, 독일, 일본 등 각각 3개의 지자체들의 ODA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지자체 전반의 ODA 개선보다는 충남 지역에 한해 그 지역의 ODA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 즉, 국내외 ODA 동향을 반영한 충남 ODA 기본원칙 정립, 충남 ODA 추진기반 조성, 충남 ODA 추진조직의 구축 및 역량 강화,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등이 제시되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수행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이연호 외, 2015년)'는 서울시

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ODA사업 현황 (특히, 서울시와 경북)을 분석하고 선진국 다수 국가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지자체 ODA사업 현황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으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 정비, ODA 정책 조정체계 마련,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국내 지자체 ODA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점은 유사하나, 201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지자체 ODA사업 시행계획 통계표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최신 사업현황(사업 내용 및 형태, 사업대상국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 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성은 지역 및 지자체의 ODA사업방식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즉 KOICA-지자체-거점대학 3자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과 센터 활용방안을 제안했으며, 그 비교사례로 일본 JICA에서 시행하고 있는 15개의 지역센터 설립 및 운영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지자체의 ODA사업 추진실태, JICA의 지역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배경 및 현황,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 간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 등 4가지 부분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1〉 연구범위 및 방법

구분	연구범위	연구방법
지자체의 ODA사업 추진실태	지자체 ODA사업 추진 규모, 분야, 사업대상지, 전담조직, 인력현황 등	문헌연구
JICA의 지역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JICA 지역센터 조직, 인력, 운영사업 및 성과	문헌연구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현황 및 추진사업	국립개발협력센터 추진배경, 설립현황, 추진사업 등	문헌연구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 간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	중단기 발전 방향, 사업형태별 실행방안 등	문헌연구 워크숍

출처: 저자 작성

제I장

제II장

섹터
포커스

제III장

지자체의 ODA사업 추진실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국제개발협력시행 계획상의 지자체 사업현황을 토대로 하여 사업 추진 규모, 분야, 사업대상지 등을 분석해보고, 지자체의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한다.

JICA의 지역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는 2015년 12월 KOICA에서 JICA 본부 및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JICA 지역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사업 및 성과 등을 검토한다.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현황 및 추진사업은 KOICA-지자체-대학 간의 3자 협력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되어온 센터 설립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사업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은 지자체의 ODA사업 발전연구 관련 자료, JICA의 지역센터 운영사례, 국제개발협력센터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나눠서 제시된다.

II. 지역 ODA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점

1. 지역 ODA사업 추진실태

1) 예산규모

2015년 ODA 확정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약 117.5억 원의 ODA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경상북도(38억 원), 인천시(31억 원), 서울시(19억 원) 순으로 예산비중이 높았다. 2009년까지 서울시가 최대 규모로 운영했으나 2010년 이후 경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지방자치단체들의 ODA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전체 ODA 중 지방자치단체의 ODA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지자체 ODA 예산¹⁾

(단위 : 억원)

지자체명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계
강원도	3.7	0.2	3.9	1.8	0.3	7.4	5.1	3.1	2.7	1.8	1.9	6.6	38.5
경기도	7.1	2.7	1.6	4.8	1.6	3.0	4.9	5.9	7.2	2.7	8.7	25.0	75.2
경상남도	-	-	-	-	-	-	-	1.3	1.2	5.0	3.4	3.4	14.3
경상북도	1.4	1.0	1.1	1.2	5.9	16.8	20.7	71.7	38.8	33.9	38.8	67.8	299.1
광주광역시	-	-	-	-	-	-	-	-	-	0.3	0.4	0.4	1.1
대구광역시	0.2	-	-	-	0.3	0.3	0.3	0.5	2.2	4.4	7.6	5.2	21
대전광역시	0.0	-	0.1	-	-	-	0.1	-	0.3	-	-	-	0.5
부산광역시	-	-	-	1.1	0.6	-	1.8	2.2	4.4	5.9	4.2	-	20.2
서울특별시	13.9	14.7	36.3	19.8	18.5	9.6	10.7	21.3	14.0	12.0	19.5	26.6	216.9
울산광역시	-	-	-	-	-	0.1	0.1	0.4	0.5	1.2	0.5	0.6	3.4
인천광역시	-	0.1	0.3	1.3	0.3	0.4	29.1	-	32.0	30.8	31.0	29.3	154.6
전라남도	0.2	0.2	0.1	1.2	0.3	0.3	0.2	-	-	-	-	-	2.5
전라북도	-	-	-	-	-	-	-	-	-	-	-	-	0
제주도	-	-	-	-	-	-	-	4.1	4.7	0.5	0.6	0.6	10.5
충청남도	0.8	-	0.2	0.5	0.3	-	0.1	-	1.3	0.8	0.2	-	4.2
충청북도	0.1	0.1	-	-	0.5	0.3	-	-	0.5	0.6	0.7	-	2.8
총계	27.4	19.0	43.6	31.7	28.6	38.2	73.1	110.5	109.8	99.9	117.5	165.5	8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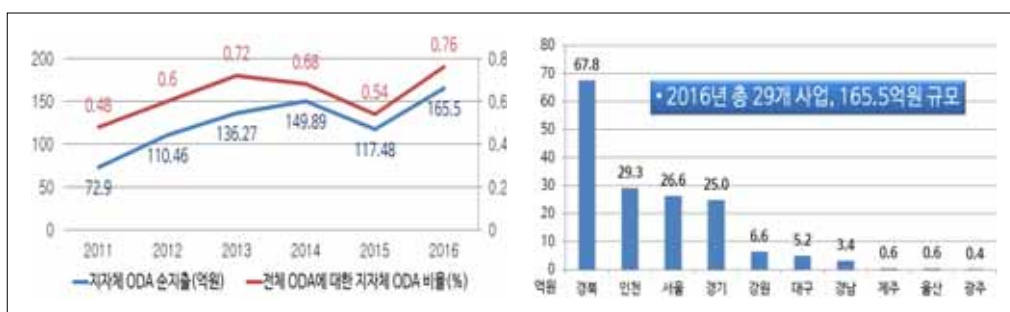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수출입은행 ODA통계사이트 (<https://stats.koreaexim.go.kr>)

(접속일: 2017.02.01.)

1) 2005년~2015년 확정 통계, 2016년 예산안 통계(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통계에 따르면, 2005년 27억 원에 불과하던 지자체 ODA 예산이 2012년 7년 만에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었으며, 2015년 12월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된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 지자체의 ODA 총예산은 165.5억 원에 달했다. 지자체 ODA는 모두 무상원조로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 1조 542억 원의 약 1.6%이며, 우리나라 ODA 전체의 약 0.76%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ODA 예산의 행정비용이 전체 165.5억 원 중 29.3억 원으로 17.7%를 차지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그림 1〉 지자체 ODA 비중 및 지자체별 ODA 예산규모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수출입은행 ODA통계사이트 (<https://stats.koreaexim.go.kr>)

(접속일: 2017.02.01.)

2) 사업형태

2016년 10개 광역자치단체 ODA 예산 약 165.5억 원을 사업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81.1억, 연수생초청 36.7억, 장학지원 5.6억, 봉사단파견 1.5억, 민관협력 0.7억이다. 과거보다 지자체 간 사업 발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건수로 보면 연수생초청 10건, 프로젝트 5건, 봉사단파견 5건, 민관협력 3건, 장학사업 2건 등 여전히 연수생초청 사업, 봉사단파견 사업, 장학사업 등 일회성 형태의 사업이 많아 일회성 형태의 ODA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사업대상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ODA사업의 대상 지역을 분석하면, 대다수의 사업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동이나 구소련 연방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거의 없고, 특히 중남미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지리

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자체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협력 도시를 중심으로 ODA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국제개발협력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지방 외교 및 도시 간 교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지자체 주요 ODA사업형태 및 대상 지역(2016년)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4) 추진조직 및 정책연관성

지자체 ODA 추진조직은 모든 지자체에서 ODA사업 전담부서 없이 국제협력담당 부서의 담당자 1~2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 및 발굴은 중앙정부 관계기관 협의 없이 주로 단체장 내부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ODA사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하며,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과의 연계도 거의 고려되지 않아 정책연관성이 매우 낮다.

2. 지역 ODA사업 추진 한계점

국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지역 ODA사업은 예산규모, 사업형태, 사업대상국, 추진조직 및 정책연관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산규모 측면에서 사업당 약 2.3억 원 규모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 지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형태도 개도국과의 국제교류 차원에서 초청연수사업이

40%를, 봉사단파견이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사업대상국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동남아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의 ODA사업 전담조직은 거의 없는 편이며 국제협력 관련 부서에서 극소수의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 발굴도 면밀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중앙정부와의 전략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선정되기 보다는 단체장 내부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표 3〉 지역 ODA사업 추진 한계점²⁾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규모	- 대부분의 사업이 자체재원으로 조달, 평균 사업규모는 약 2.3억원으로 소규모로 추진
사업 형태	- 초청연수(40%), 봉사단파견(14%) 등 위주로 수행하며, 프로젝트(22%) 사업은 일부 지자체(경기, 제주 등)에서만 수행
사업 대상국	- 전체사업 중 약 76%가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중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매결연 도시가 많은 일부 국가에 집중
추진 조직	- 모든 지자체에서 ODA사업 전담부서 없이 국제협력 담당 부서의 담당자 1인이 업무 수행
사업 발굴	- 사업의 기획 및 발굴이 관계기관 협의 없이 주로 단체장 내부 결정으로 진행
정책 연계성	- 서울·부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ODA사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협력전략과 연계도 거의 고려되지 않음.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b)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자 재정리

이러한 지역 ODA사업 추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방안으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ODA사업 전담조직 구성, 추진전략 및 조직원들의 역량 강화,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성 제고 등의 정책 제언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지역 ODA사업 추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인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지적된 지자체 ODA 추진 한계점을 표로 정리한 사항임.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ODA사업의 중심인 지자체 ODA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KOICA와 같은 중앙정부의 원조시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JICA의 지역센터 운영현황과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을 토대로 제안될 것이다.

제I장

제II장

섹
터
포
커
스

제III장

III. JICA의 지역센터 운영현황

1. JICA 지역센터 개요

1) 현황

JICA는 총 15개의 국내사무소(domestic office)를 운영 중이며, 이는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국내지사(branch office) 및 봉사단 훈련센터(volunteer training center)로 구분된다.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와 국내지사(branch office)의 역할은 동일하나, 연수시설의 유무에 따라 구분(국제센터는 연수시설 보유)된다. 2013년 일본 ODA 예산규모 축소로 지역센터가 18개에서 15개로 통폐합되었다.

2) 설립목적

지역센터는 당초 각 지역에서 연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지방의 제한된 ODA 접근성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 목적과 동일).

3) 역할

JICA 국내사무소의 주요 역할은 ① 연수 프로그램(knowledge co-creation program) 운영, ② 지방정부 및 지역 NGO 연계 풀뿌리사업(grassroot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 실시, ③ 지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supporting SMEs)이다. 그 이외에 각 국내사무소별로 특색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나고야 국제센터의 경우 지구촌광장(global plaza)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요코하마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이민 박물관(immigration museum)을 운영하면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평가

JICA 국내사무소는 매년 4월 연간계획(annual plan)을 수립하며, 차년도 4월에 JICA 부총재(vice president)의 평가를 받는다. JICA 국내사무소는 본부 내 국내전략 및 파트너십부

(domestic strategy and partnership department)가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조직상으로는 부총재 산하기관으로 존재한다.

5) 지역센터장

JICA 국내사무소 소장(director general)으로는 최소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 많은 JICA 직원이 파견되며, 보통은 퇴임을 앞둔 부서장인 경우가 많다.

6) 애로사항

최근 JICA 본부(headquarter)가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지는 고민은 ① 정부정책을 어떻게 각 국제센터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 ② 국내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의 제한이 있기에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③ 그리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다.

2. JICA 지역센터 운영사업

1) 연수사업

초창기 JICA 지역센터 설립 목적은 연수사업 실시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센터는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사업의 목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역량 강화와 일본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일본 지역 홍보 등이며, 주제별 연수, 국별연수, 장기연수로 구분된다. 섹터별로는 보건, 교육, 경제 인프라, 환경, 재난방지, 무역 및 산업, 에너지, 공공행정, 금융 등으로 분류된다.

2) 민관협력사업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지방정부 및 NGO와의 협력 프로그램(grass root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이다. 국제센터 민관협력사업의 주요 특징은 개도국 수요 중심 발굴이 아닌 공여국 공급 중심 발굴이라는 것이다. 민관협력사업의 사업발굴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I장

제II장

섹터
포커스

제III장

〈박스 1〉 JICA 민관협력사업 발굴절차

- (1) 국제센터에서 1년 2차례 지방정부 및 NGO 대상 사업 발굴 공모
- (2) 관심 있는 지방정부 및 NGO에서 사업 제안
- (3) 국제센터에서 취합 및 1차 검토
- (4) 1차 검토 후 후보 사업 목록의 JICA 본부로 송부
- (5) JICA 본부에서 최종 지원사업 선정

출처: JICA (2015a); JICA (2015b)

민관협력사업의 예산규모는 NGO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 5년간 최대 1,000만 엔(약 85만 달러) 지원사업과 3년간 최대 100만 엔(약 8.5만 달러)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최초로 사업에 진입하는 NGO는 3년간 최대 100만 엔 지원사업만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에는 3년간 최대 3백만 엔(약 25만 불)을 지원한다.

민관협력사업의 사례로는 부탄에서 실시한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부탄 하(Haa) 지역에서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부탄 하(Haa) 지역의 Bji와 Uesu 마을이다. 수혜자는 4,653명으로 895가구에 달한다. 동 사업의 결과물로는 ① 지역기반관광(Community-based Sustainable Tourism, CBST)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설립 및 사업 방향 수립, ② CBST 관광제품 개발, ③ CBST 관광패키지 개발, ④ CBST 수행기관 설립, ⑤ CBST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사 및 모니터링, 유관기관 역량 강화가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5~2017년으로 총 3년이다.

3) 해외봉사단사업

센터 봉사단사업으로는 봉사단원 선발, 봉사단원 가족 대상 설명회, 봉사단원의 파견 전 주지사 예방, 귀국봉사단원 연합회 활동 지원, 귀국봉사단원의 지역 ODA 교육 강사 활용 등이 있다.

봉사단원 선발에 앞서 시·군·별 시·민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며, 보통 매년 450~500명이 참석한다. 선발은 JICA 본부에서 진행하며 봉사단원 사후관리의 경우 각 지역센터에서 담당한다. JICA 중부 지역센터에서는 취업상담사를 두어 봉사단 사후관리를 한다.

또한, 봉사단원 가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① 파견대상국 치안사항, 국가현황, 봉사단원 활동지를 안내하고, ② 귀국 봉사단원의 활동경험담 소개(연 1회)를 통해 JICA 봉사단 프로그램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다.

연간 4회 정도는 새로운 봉사단원이 파견될 때마다 JICA에서 지방 주지사(local government)와의 예방(courtesy call)을 주선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봉사단원을 친선대사(friendship ambassadors)로 임명하여 파견국에 해당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귀국봉사단원 연합회(ex-volunteers aluminum associations)는 활동경험담을 공유하는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WFK 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귀국봉사단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유사하다.

4) 글로벌시민교육사업

JICA는 학교, NGO, 지역 정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발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초·중·고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며, JICA 이해, ODA 이해에 대한 교육이 주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JICA는 개발교육에 있어서 모듈이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교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JICA 귀국봉사단원을 활용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개발교육(세계시민교육)이며, 글짓기 공모전(에세이 컨테스트), 교원 개발도상국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시민교육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박스 2〉 JICA 시민교육사업 사례

■ 귀국봉사단원 파견 개발교육

- (예산) JICA 예산이 아닌 요청 학교예산으로 진행
- (강사모집) 귀국 시점에 해당 지역 봉사단원에게 개발교육 강사모집 정보를 공유하며, 봉사단원들 중 참여를 원할 경우 지역센터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귀국봉사단원 대상으로 한 강사 파견 사전 교육프로그램은 없으나 강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어 강의 준비 등에 대한 안내를 돕는 역할을 함.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학교의 요구에 따라 몇 시간부터 몇 일간의 교육까지 다양하며, 교육 내용의 경우 강사와 학교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조치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역센터가 개입함.
- (2014년 실적) JICA 전사적으로는 약 2,000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2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식 전파
- (시행 주체) 각 지역의 지역센터

제I장

제II장

섹터
포커스

제III장

■ 글짓기 공모전(에세이 컨테스트)

- 교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방학 기간 중 2주간 진행되며, 참가 교원들은 현장답사 후 관련 경험을 학교 수업에 반영해야 함.
-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교육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주어 학교에 공고 실시.
- (시행 주체 및 실적) JICA 글로벌 플라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약 20개의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년 약 170명의 교원이 참여함.
- 개발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개발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해외현장활동 지원

-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NGO, 기관 등 개발도상국 사업현장 방문을 원할 때 JICA는 해당 기관과 JICA 해외사무소와 연계하여 해외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산)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진행
- (2014년 실적) 도쿄센터의 경우 72개 기관의 해외현장활동을 지원하여 1,099명이 현지 사업을 접할 수 있었음.
-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외현장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귀국봉사단 대상 개발교육과 에세이 컨테스트에 먼저 참여하고 해외현장활동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함.

■ 일반인 대상 개발교육

- JICA 직원들이 대학교, 커뮤니티, 일반인들 대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요청이 들어오면 강사 파견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정한 형식은 없음.

출처: JICA (2015a); JICA (2015c)

3. 시사점

JICA 지역센터는 JICA의 지방사무소 기능을 가지고 전술했듯이 각 지역에서의 연수사업, NGO 지원사업, 귀국봉사단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선발된 JICA 봉사단원들이 파견될 때마다 지방 주지사를 예방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JICA 봉사단원을 친선대사로 임명하여 파견국에 일본 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볼 때, JICA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대표적 원조시행기관이 지역에 센터를 두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지역의 ODA사업, 크게 보아서는 한 나라의 ODA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JICA의 지역센터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JICA 지역센터와 동일한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KOICA에서 각 거점지역별로 지자체 및 거점대학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추진사업으로는 JICA 지역센터의 조직체계 및 운영사업 등을 고려 시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연수사업

단기적으로는 JICA 지역센터와 같이 직접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인바, 부산지역센터와 같이 지역 내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KOICA 연수사업 추진 시 오리엔테이션, 평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민관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단기간 내에 JICA와 같이 NGO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등 현재 민관협력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시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홍보 및 지원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 민관협력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배정 및 시범 실시 등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외봉사단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봉사단원 설명회 개최, 귀국봉사단 커뮤니티를 통한 봉사단원 사후관리, 귀국봉사단원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실시 등 JICA 지역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JICA 지역센터와 지방정부의 연계활동을 참고로 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각 지역 지자체 간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4) 글로벌시민교육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는 ① 귀국봉사단원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② 지역 정부와 연계한 글짓기 공모전 및 교원 대상 해외현장활동, ③ 시민 대상 이해증진 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I장

제II장

섹터
포커스

제III장

IV.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현황 및 추진사업

1.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현황

1) 추진배경

비수도권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참여 관심도 및 교육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상 ODA 유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비수도권 지역 청년 대상 국제기구 등 해외진출 관련 상세정보 및 전문 교육 제공 등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ODA사업 참여기반 확대를 통한 ODA 상생 플랫폼 구축전략의 국내적 실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최근 각 지자체의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증증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자체 ODA사업을 형성·기획, 수행하는 등 ODA 집행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지자체 ODA 참여는 우리 정부의 정책 일관성 유지를 해치고, 결국에는 원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와 ODA 분절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포괄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 등 원조정책 하에서 지자체 및 국내 대학들의 강점을 활용한 ODA사업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므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립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 시장은 약 2,000억 달러로, ODA 참여는 우리 중소기업의 원조분야 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주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립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ODA 정보 제공 및 자문을 통해 아직까지는 생소한 공적개발원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추진과정

동 센터는 ODA 시행기관과 각 지역 시민들 간 협업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ODA 잠재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ODA사업성과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국립대학 내 설립이 추진되었다.

국립대학 내 설치에는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지속성 있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의 ODA사업 분절화(무·유상, 무상 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센터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개발원조 정책을 전파하고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대학에 센터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센터가 지역 거점 ODA 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센터 사업 유관기관인 KOICA-지자체-지역 거점대학이 아래와 같은 역할분담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하였다.

〈박스 3〉 KOICA-지자체-지역 거점대학간 역할

- KOICA : 예산 및 ODA 콘텐츠 제공, 지역에서 추진 중인 ODA사업 자문
- 지자체 : 제반 행정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기반 확대 노력
- 국공립대학 : 센터 인력 고용 및 사무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출처: 저자 작성

동 MOU를 바탕으로 각 대학은 센터를 대학조직 내 설립하기 위한 내부규정 개정 등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센터장 선발 및 고용계약 체결을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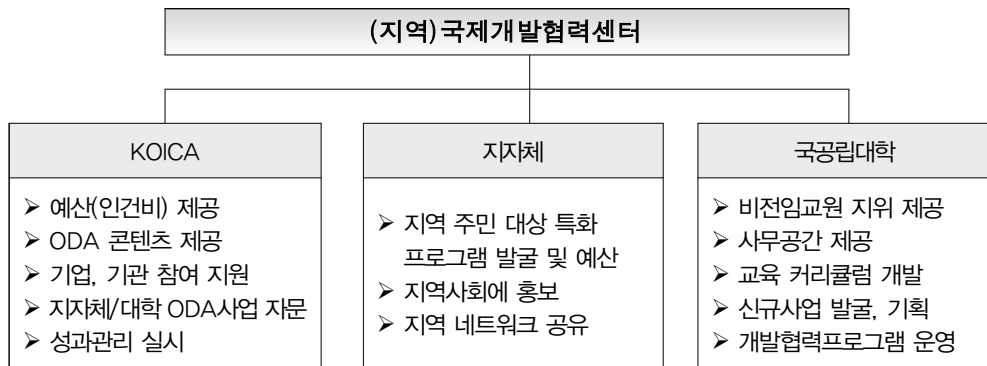
3) 주요기능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주요기능은 센터 소재 지역 거주민, 기관, 기업 대상 ODA 교육, 설명회, 간담회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규 무상협력사업 발굴, 컨설팅 등 센터 소재 지역 ODA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ODA사업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WFK 귀국봉사단 지역사무소 역할 등도 겸할 수 있다.

4) 운영방안

국제개발협력센터는 MOU 참여 기관(KOICA-지자체-국공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세부 프로그램은 거점대학 또는 지자체(산하기관)에서 주도한다. 센터 운영은 3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

〈표 4〉 센터 운영주체 및 수행업무



출처: 저자 작성

센터의 운영 주체는 KOICA, 광역지자체, 지역 국립대학이며, KOICA는 센터장 및 행정원 인건비 예산 지원, ODA 콘텐츠 제공,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제반 행정지원, 지역사회 참여기반 확대 노력 및 지자체 자산 및 프로그램과의 접목 등 협업 등을 수행한다. 대학은 센터 인력 고용(센터장 비전임), 사무공간 제공,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한다. 센터장, 행정원 채용은 대학의 공모절차로 진행(3개 기관 공동 선발참여)한다.

5) 설립현황

국제개발협력센터는 현재 강원도, 경기도, 대구시(경상북도 포함), 인천시, 전라북도, 제주도에 설립되어 있다. 부산시(경상남도 포함)에는 KOICA 국내사무소인 부산사무소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이 필요 없었다.

강원도는 강원대학교, 경기도는 환경대학교,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인천시는 인천대학교, 전북도는 전북대학교, 제주도는 제주대학교에 설립되어 있으며, 학교 내 공식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5〉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현황

구 분		제 주	대 구	인 천	강 원	전 북	경 기
협력 기관	지자체	제주도	대구시	인천시	강원도	전북도	경기도
	대학교	제주대	경북대	인천대	강원대	전북대	한경대
MOU	체결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체결일	'15.8.21	'15.8.24	'15.9.23	'15.10.1	'15.10.14	'15.10.30

* 각 센터는 2016년부터 운영 중

출처: 저자 작성

2. 국제개발협력센터 추진사업

국내 6개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6년 초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시작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ODA 교육을 중심으로 ODA 홍보, 조달설명회, 민관협력, WFK 봉사단 모집설명회 등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사업 역량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 ODA 인지도 및 지지도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지역 내 학계, 정관계 등에 개발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친ODA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국제개발협력센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구분	강원	경기	대구	인천	전북	제주
ODA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 심화과정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대 산단/중고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특강 • 이해증진사업 행정학과 위임 및 자문 • 정규 ODA 교육 기본과정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교육 • 기본·심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한라대 초청강의 • 이해증진교육 기본과정
차세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유럽 연수단 • 춘천교대 하계 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중 세계시민교육 • 평택대 국제개발협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교육 실시 (19개교 2,0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특강 (6개교 4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특강 및 국제개발 시민교육(총 9회 460명) 	-
봉사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 및 국제기구파견 모집 설명회 • 귀국단원지역 대표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 모집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귀국단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귀국단원 간담회 • 봉사단모집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 모집 설명회 • 전북 귀국단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 모집 설명회
민관 협력 사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농대 농촌 지도 전문 인력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수파누 봉대 관광학과 역량강화 	-	-
홍보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K 사진 전시회(3회) • 홈페이지/SNS 운영 • 개소식 KBS 뉴스보도 • 강원CBS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자체 ODA 활동 사진전 •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역사 사진전, SNS운영 (도달자수 : 12,670개) • 언론계기홍보 : 45건(센터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K 사진전 • 인천대 축제 센터 홍보 부스 운영 및 1:1 귀국단원 상담 • 인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K 및 국제개발홍보상담부스 운영 • 뉴스레터 및 SNS 운영 • 전주 MBC 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 축제 KOICA 및 ODA 홍보 부스 운영 • KOICA 활동 사진전

제I장

제II장

섹터포커스

제III장

구분	강원	경기	대구	인천	전북	제주
	인터뷰		식 : 중앙, MBC 뉴스 등 27건), (조달설명회 : 중앙일보 등 10건), ODA 정규 교육과정 : 경북 일보 등 8건)	채용박람회참가	프로 출연 • 국제개발협력 학회 MOU 체결	
지역 ODA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시책설명회 참석(센터소개 브리핑) • 도 교육청과의 세계시민교육 협의 • 도 ODA사업 실시자문(수회) • 연수과정공모 참가 및 연수실시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추진 13개 사업 자문 • 경기지역 협력 기관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기관 18건 자문 • 연수과정 정보 제공 및 자문(4개 기관 9건) • 조달입찰 정보 제공(4개사 2건) • ODA 조달 설명회 • 기업 ODA 진출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기관 12건 자문 • 제1회 조달 설명회 • 베트남 고위직 초청 국제개발협력 특강 및 인천대 봉사 단원 파견 간담회 • 센터&UMA 국제개발협력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기관자문 • 민관협력사업 추진 지원 • 전북대 Korea Aid 의료 분야 참여 지원 • 민관협력사업 설명회 • 조달설명회 	-
MOU	• 센터-KO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평택대 사회봉사센터 • 센터-KOVA 	• 센터-KO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온해피 • 센터-KOVA 	• 센터-국제개발협력학회	• 센터-KOVA
포럼/학술대회	• 연세대빈곤 문제연구소 포럼 참석(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발표)	-	-	• 제1회 인천 국제 ODA 포럼	•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대회	-

출처: 저자 작성

V.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 간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

1. 개요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역 ODA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논거로 현재 지역 ODA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점을 먼저 설명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KOICA와 같은 국내 원조전담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JICA 지역센터의 사례를 들면서 강조하였다.

즉,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JICA와 같이 KOICA가 여러 지역에 자체 지역사무소를 두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점 지역별로 지자체와 거점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선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거점대학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들과 협력해나감으로써 지역 ODA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거점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발전은 지역 ODA사업의 발전과 같은 연결 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립 취지가 지역 ODA사업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 성패는 결국 KOICA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력 파트너십 확대에 달려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ODA사업이 부진해진 이유 중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ODA사업 추진 과정에서 KOICA와 같은 ODA사업 주류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오지 못한 점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지자체 간에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센터의 발전은 지자체의 ODA사업과 지역 ODA사업의 발전으로 이어나갈 것인바, KOICA와 지자체 양 기관 모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역 ODA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 ODA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발전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2단계로 나눠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I장

제II장

섹터
포커스

제III장

2. 단기 발전방안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단기(3~5년) 발전방안은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KOICA-지자체-대학 간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KOICA-지자체 양 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서 센터의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센터 설립 초기의 기본 협력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함으로써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보다 굳건히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단기간 내 시행할 주요사업은 ODA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WFK 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 대학 아카데미 협력사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원조조달설명회 및 교육, ODA 홍보 및 포럼행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이러한 단기단계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센터가 KOICA-지자체-거점대학 3자 간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고 대학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KOICA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즉, 센터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초기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KOICA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사업시행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과 함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는 센터가 대학의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코이카와 대학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센터의 충분한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KOICA는 센터 분담사항인 센터장 및 행정원 지원 이외에도 ODA사업수행기관 인턴(Young Professional, YP)을 센터에 최대한 파견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중장기 발전방안

거점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기본사업들이 KOICA-지자체-대학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KOICA-지자체 간의 ODA사업 추진 파트너십도 자연스럽게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ODA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KOICA-지자체 간 협력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

즉,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매개체로 하여 ODA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KOICA-지자체 간

상호 예산 투입 등 지원 강화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도 다각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센터의 사업다각화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역 ODA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사업다각화는 기본 협력사업을 포함하면서 KOICA-지자체와의 공동연수 지원(공동연수 적격사업 발굴,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지역 민관협력사업 지원(지역 개발 NGO 사업 발굴,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지역 특화 해외봉사단 파견 지원(예, 경기 테크노 창업봉사단, 제주 친환경관광봉사단, 경북 새마을봉사단 선발, 사후관리 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OICA-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JICA의 지구촌광장(global plaza)와 같이 지역 내 일명 'IDCC³⁾ 글로벌아카데미'라는 개발협력 전문 교육·홍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역 주민 및 학생들 대상의 글로벌시민교육, 지구촌체험관 운영, 청년 취·창업 지원, 귀국봉사단 지원 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7〉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단기 및 중장기 추진사업

구분		추진사업
단기	대학이해증진사업	- (기본) KOICA 사업배정, 센터 주도 대학/지자체 내 시행
	ODA 교육(시민, 차세대 등)	
	WFK 사업(모집설명회, 선발, 귀국봉사단 관리 등)	- (봉사단선발, 귀국봉사단관리) · 봉사단 모집설명회, 지역귀국봉사단연합회 활동 지원 · 봉사단 파견 전 도지사 예방(Courtesy Call)
	대학아카데미협력사업	- (원조조달설명회, ODA포럼,홍보행사 등) · 지자체와 협조하에 지역 각종 행사와 연계(취업박람회 등)
	원조조달설명회	
	ODA포럼,홍보행사	
단기사업 지속 추진		
중장기	연수사업	- (사업 발굴, 시행기관 선정, 평가,모니터링 지원) · KOICA의 지자체 또는 지역기관 수행사업 발굴,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민관협력사업	- (사업 발굴, 시행기관 선정, 평가, 모니터링 지원) · 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적정사업 발굴, 선정 지원 · 지역 민관협력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대학아카데미사업)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행
	글로벌아카데미사업	- 지역 내 'IDCC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 글로벌아카데미 활용 글로벌시민교육, 지구촌체험관 운영, 청년취창업 지원, 귀국봉사단 활동 지원 등

출처: 저자 작성

3) IDCC는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영문명인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의 약칭임.

〈참고 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제23-1호: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3차 국제개발위원회 의결안건(제23-1-2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5b. “제20-3호: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20차 국제개발위원회 의결안건(제20-1-4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박광동 외. 2014.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여형범·이강준·조보영. 2015. 『충남 ODA사업 추진방향 연구』. 공주: 충남연구원.
- 이연호 외. 2015.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수행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2015. “일본 JICA 출장 결과보고서” KOICA 내부문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JICA. 2015a. “JICA Profile.” Toky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_____. 2015b. “Outline of Chubu International Center (JICA Chubu).” unpublished document. Nagoy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_____. 2015c. “Welcome to JICA Tokyo International Center (TIC).” unpublished document. Toky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수출입은행 ODA통계사이트: <https://stats.koreaexim.go.kr> (접속일: 2017.02.01.).